

기획

중동 민주화운동과 5차

카이로에서 일어난 에로스 효과*

글 조지 카치아피카스 | 웨스트워스 공과대학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번역 김신 | 푸르메재단 기획실장

* 미국의 사회정치학자인 조지 카치아피카스(George Katstafkas)가 1987년에 저술한 『신좌파의 상상력 - 세계적 차원에서 본 1968』에서 사용한 용어로 '해방을 향한 욕구' 또는 '억압에 저항하는 원초적 분능'을 의미하였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유를 추구하고, 이러한 본능이 에로스 효과의 계기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권력에 대한 반란 또는 억압에 저항하는 원초적인 분능이 수백만 민중의 행동을 이끌어낸다고 보았다.

이집트 카이로 타흐리트 광장에서 탱크 위에 올라가 기념 사진을 찍고 있는 어린이들(2011년 2월) © AP/연합뉴스



© Christian Peacemaker Teams 기독교평화운동단체(www.cpt.org)

세계는 지금 “이집트 혁명”을 열정적으로 환호하고 있다. 카이로에서 일어난 18일 동안의 역사적인 시민 봉기가 이루어 낸 놀라운 승리에 전 세계가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몇 개월 전만해도 이집트에서 고대 파라오 식의 지배가 끝나고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퇴진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은 터무니 없는 희망 사항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런 무바라크가 오늘 권력을 시민들에게 빼앗기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제 수 천명의 이집트 시민들은 그를 법정에서 세워 그가 집권하는 동안 저지른 부패에 대해 법적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랍권 국가들의 혼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무바라크의 옥죄기 식 권력은 튀니지에서 채소 행상을 하며 살아가던 한 시골

마을의 모하메드 보우아지지(Mohamad Bouazizi)의 자살로 촉발된 일련의 연쇄적 사건으로 무너졌다. 알제리, 모리타니아, 이집트에서 일어난 최소 8건의 자살사건은 아랍권 민초들에게 강력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시작된 시민 봉기는 모든 아랍 국가로 일파만파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튀니지에서는 오랫동안 독재집권을 해온 벤 알리 대통령이 부인과 함께 추방당하였다. 한때 영부인으로서 권력을 휘두르던 그녀는 추방당하면서까지도 국가의 재산을 최대한 끌어 모아 비행기에 싣고 국외로 빠져나갔다. 예멘에서는 30년 이상 장기집권을 해온 알리 압둘바 살레 대통령이 권력에서 물러날 것을 약속하였다. 예멘의 시민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요르단의 압둘라 국왕은 정치 개혁을 희망하는 수 천명

시민의 힘은 대단한 것이었다. 시민들이 연쇄적으로 광장을 점유하면서 혁명적 열망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그들의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확신 속에서 내가 '에로스 효과' 라고 부르는 뭔가를 찾아냈다.

의 시민들이 수도 암만에서 거리행진을 벌이자, 불안한 정국에 두려움을 드러내며 즉시 새로운 내각을 임명하였다. 거리행진 끝에 두 명의 시민이 경찰에 의해 희생되었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시민 봉기의 파도는 바레인과 시리아로까지 퍼져 나갔다. 그 과정에서 수십 명, 아니 그 이상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리비아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반정부세력이 카다피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본격화하면서 내전이 시작되었다. 내전에 휩싸인 리비아에서는 대혼란과 파괴가 계속되고 있다. 이제 아랍 세계의 모든 독재 국가들이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까지도 두려움에 떨며 서둘러 예방차원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민주화의 물결
 폴뿌리 시민 세력이 하룻밤 사이에 국민들을 일깨우며 아랍 세계 전역에서 봉기했다. 하지만 이 지역을 휩쓸고 있는 민주화의 열기를 아랍적 현상으로부터 제한해서 본다면 그 힘

의 잠재력과 최근의 세계사를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번 시민 봉기가 아랍만의 현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와 비슷한 현상을 보인 선례를 최근의 역사 속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는 1989년에 동유럽에서 아무런 경고도 없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는 현상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그보다 전에 동아시아에서는 민주화의 물결이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시작으로 필리핀, 버마, 티베트, 중국, 대만, 네팔, 방글라데시, 태국으로 삼시간에 번져 나갔다. 1986년부터 시작



© Christian Peacemaker Teams 기독교평화운동단체(www.cpt.org)

해 그 후 6년 동안 필리핀, 한국, 방글라데시, 태국의 독재자들이 연이어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맞이하거나 국외로 추방당하였다. 그 중에는 결국 감옥으로 보내진 독재자도 있었다.

한국 민주화가 보여준 교훈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시민의 힘이 붕괴되어 오랫동안 지속된 권위주의 정권을 일순간에 무너뜨린 사례를 근대사 속에서 적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나는 1987년에 한국에서 일어난 6월 민주항쟁이 이집트의 경우와 유사한 점이 많아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일 동안 지속된 6월 민주항쟁 속에서 수백만 명의 한국시민들은 법을 어기고 거리로 나서서 그들을 제지하려는 수천 명의 전투경찰과 맞서 싸웠다. 6월 29일 한국의 군사 독재정

권은 결국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힘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로써 26년간 지속된 군사정권이 한국에서 막을 내리게 되었다. 2011년 2월 11일 이집트에서 술레이만 부통령이 무라바크의 퇴진을 선언했듯이, 1987년 6월 29일 서울에서 항복 선언을 발표한 사람도 다름아닌 독재자의 제2인자였다. 제2인자였던 노태우는 곧 대통령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첫 번째 직접 선거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었던 두 야당 후보들 간의 격렬한 분열과 광범위한 선거조작 의혹으로 접절되면서 결국 독재자의 제2인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다. 시민들은 선거결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군사독재를 종식시킨 후 팽배했던 높은 기대감과 낙관론은 쓰디쓴 절망감으로 변했다.

이집트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교훈을 이



© Christian Peacemaker Teams 기독교평화운동단체(www.cpt.org)



©Christian Peacemaker Teams 기독교평화운동단체(www.cpt.org)

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필리핀의 1986년 민주화 운동에서도 교훈은 찾을 수 있다. 필리핀에서는 1985년에 첫 번째 시민혁명(People Power Revolution)이 일어났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장기집권을 해 온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가 국외로 추방당하고 코라손 아키노 정부가 새로 들어섰다. 새 정부는 토지개혁의 약속을 지키라며 마닐라에서 행진시위를 벌이던, 농민 21명을 사살하였다. 오늘날 필리핀은 점점 증가하는 기아인구로 힘들어 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300만 명의 필리핀 어린이들이 기준보다 낮은 체중과 키를 보이고 있다. 1973년에 태국에서는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 가증스러운 군부독재정권을 퇴진시켰다. 그 과정에서 77명의 시민이 총을 맞고 방콕의 거리 위에 쓰러졌다. 그 후 태국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자유

로웠던 시절이 잠깐 지속되었다. 2년 간의 짧은 평화는 군부가 시민들을 무참하게 짓밟고 독재정권을 다시 세우면서 끝이 났다. 그 과정에서 수십 명의 학생들이 희생되었다. 1990년 네팔에서는 50일 간의 시민항쟁이 일어나 62명의 시민이 희생되고 그 대가로 입헌군주제가 들어섰다. 그러나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왕족은 절대권력을 되찾았다. 2006년에 다시 봉기한 시민들은 19일간의 항쟁 끝에 군주제를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 넣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21명 이상의 민간인이 경찰력에 의해 살해당하였다.

시민의 힘, 보편적 가치는 그렇게 시작됐다

예상치 못한 급격한 정치적 변화는 점점 21세기의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첨단



© Christian Peacemaker Teams 기독교평화운동단체(www.cpt.org)

기술로 무장한 미디어가 전례 없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은 정부를 전복할 수 있는 동시적 시민행동의 힘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누가 그러자고 선동한 것도 아닌데 시민들은 스스로 광장에 모여 시민의 힘을 드러냈다. 시민의 힘은 도시에서 도시로 나라에서 나라로 퍼져나갔다. 이러한 움직임이 처음으로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난 것은 1968년이였다. 특히 프랑스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봉기한 시민의 힘은 대단한 것이었다. 나는 그 시대를 면밀히 연구해왔다. 시민들이 연쇄적으로 광장을 점유하면서 혁명적 열망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수백만 명의 일반 시민들이 통일된 방식으로 행동했다. 그들은 그들의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확신 속에서 내가 '에로스 효과'라고 부르는 뭔가를 찾아냈다. 시민들의 보편적 욕구가 동시에 분출하게 되는 역

오는 시민의 에너지를 현재의 부당한 구조를 조금 유연화하는 데로 돌리려 한다. 무바라크를 제거하면서도 최고위급 장군이나 지방정부 통치자, 대학 총장 등을 내세워 무바라크가 세운 체제는 그대로 유지시키는 방식이다. 이것이 바로 워싱턴과 카이로의 지배 엘리트들이 목적인 바이다. 미국은 부유하고 힘있는 계층에게 권력을 부여하고 있는 이집트의 현 시스템에는 변형을 가하지 않고 간단히 지배자의 얼굴만 바꾸는 방식으로 투자자들과 기업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싶어한다. 동시에 미국은 이번 기회를 틈타 이슬람 근본주의에 맞서 보다 더 단단한 보호막을 세우고자 한다.

오늘 주요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과 이집트의 군부 지배자들 간의 교묘한 술책에 관해 집중 보도했지만, 진실된 보도는 사람들을 독재의 수동적 수용자에서 개혁의 탄력을 만들어 내는 적극적인 창조자로 전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집트에는 이미 재앙

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집트 시민들은 방콕의 붉은 셔츠와 노란 셔츠가 보여준 교훈을 생각해야 한다. 마크코스를 무너뜨린 노란 색종이, 목적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천안문 광장을 가득 메운 중국인들이 남긴 교훈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미국은 '진보'의 제단 위에 꼭두각시 독재자를 희생양으로 바치고 다른 꼭두각시를 새로 세우려고 한다. 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미국의 전형적인 전략이다.

시민이 민주주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랍의 일반대중이 시민운동의 힘을 내면 깊숙이 껴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타흐리르 광장에 끊임없이 모여들었던 예멘 시민들의 힘찬 저항에서 보았듯이, 저항의 물결로 이 지역에서 독재를 일거에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질문은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시민 봉기의 궁극적 목표는 민주적 형태의 의사결정 방식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엘리트들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풀뿌리 형태로 재구성해야 한다. 1980년 광주 시민들은 잔혹한 군대에 포위된 상태에서도 함께 뭉쳤다. 그들은 군대의 포위로 고립된 상황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평화롭게 스스로를 다스렸다. 광주민주화운동의 강력했던 잠재력을 들여다 보면, 아랍에서 정치적 엘리트들이 왜 그렇게 허둥지둥 외연 상의 변화를 서둘러 진행할 수 밖에 없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그것은 시스템의 변화가 아니고 최고 권력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

카이로의 젊은 운동가들은 무바라크의 퇴출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들이 진정으

로 원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정의를 실현하고, 부자들이 부도덕하게 점용해 온 시민의 재산을 되찾는 것이다. 또한 최근의 민간인 학살은 물론이고 수십 년 동안 자행된 고문의 책임자와 독재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이집트에서 누가 승리를 거둘 것인지 아직 분명하게 알 수는 없다. 시민들의 평화시위가 이집트 사회를 한 단계 높은 민주주의 사회로 데려갈 것인가 아니면 미국 정치인과 이집트 군부가 계속해서 지배하게 될 것인가? 아직 알 수 없지만 후자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그렇다면 실제로 민주적 변화를 위해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은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누구도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움직임의 결과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선행된 역사를 통해 가능한 결과를 통찰해 낼 수는 있다. 희생당한 중동 시민들의 붉은 피가 1980년 광주에서 희생된 수백 명의 순교자들의 피처럼 자유의 나무를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은행과 다국적기업이 투자자들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이 지역에 이식하고자 하는 '죽벌 자본주의'의 돌진에 기름을 칠할 것인가? 분명 두 가지 현상 모두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둘 사이의 균형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가는 전적으로 시민들이 자유를 위한 투쟁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주역}

조지 카치아피카스(George Katsiaficas)

카이로 태생의 어머니를 둔 조지 카치아피카스(George Katsiaficas)는 미국 보스턴의 웨트워스 공과대학에서 인문학을 가르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저서로는 두 권으로 출판된 『알려지지 않은 아시아의 시민 혁명(Asia's Unknown Uprisings)』이 있다.